

2018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12. 21. (금), 14:40 ~ 16:4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소회의실
- 출석위원 : 000, 000, 000, 000, 000, 000
(이상 6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	(공개)
---	---------------------------------	------

【보고사항】

1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정 보고	(공개)
---	----------------------	------

2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남북 공동등재 경과 및 결과 보고	(공개)
---	--	------

3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내 임해전지(동궁과 월지) 재현계획의 세계유산센터 협의 경과 보고	(공개)
---	--	------

심 의 사 항

1.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 심의

가. 제안사항

「가야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고분군」은 2013년 세계유산 잠정목록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재되었으며, 2015년 3월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추진하기로 의결됨
-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5차 회의(2017.12.15) 심의 / 보류
 -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것
 - OUV 보완, 신청기준 제서술, 국내외 비교연구 심화, 완전성 제서술, 보존 관리계획 구체화 등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 위원회 결과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보완 하여 제출하였기에 심의 상정함

다. 진행경과

- 대상유산 : 「가야고분군」(총 7개 지역 고분군)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추진 경과
 -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 구성유산 재구성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 * 제1/2/3차 토론회 (18.3.7 / 18.3.21 / 18.4.25)
 - 토론회를 거쳐 도출된 최종 고분군 확정, 지자체 추진단 MOU 체결(8.28)
 - 가야고분군 등재추진단을 중심으로 등재신청서에 대한 전반적 보완 검토 진행

라. 등재신청 후보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 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

* 상세 내용은 추진단 설명자료(붙임)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가야고분군(Gaya Tumuli)
- 구성유산 : 「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 유산구역 : 유산구역(209.74ha), 완충구역(861.28ha)
- 등재신청기준
 - 기준(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신청유산은 고분의 입지, 묘제의 변화, 배치방식 등을 통해 가야 문화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 및 가야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독보적인 물질 증거이다. 가야는 해로와 수로, 육로가 연계된 체계적인 교역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 유산은 이러한 교역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등한 수준의 여러 정치체가 상호 교류하면서 성장한 가야의 독특한 사회구조를 보여 준다. 가야고분군은 광묘에서 실묘로 변화하는 동북아시아의 보편적인 묘제 흐름을 반영하며 위계가 반영된 고분의 배치방식과 부장품을 통해 가야 사회구조의 변화를 탁월하게 보여 준다. 7개의 고분군은 각각의 가야 정치체를 대표하는 중심고분군으로 가야의 성장과 발전, 교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

가야고분군은 고대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고대국가 발전 과정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가야는 유사한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않고 600여 년간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하였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정치형태로 가야고분군은 이를 증명하는 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

○ 완전성에 관한 기술

신청유산은 전체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입증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유산구역에 포함된 고분군의 규모와 봉분 등은 중심고분군의 등장과 확산, 발전의 전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고분군에 대한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유산은 개발이나 방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주변 경관과 함께 효과적으로 보존되고 있다.

○ 진정성에 관한 기술

신청유산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입지와 주변 환경, 정신과 감정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매장문화재로서 과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구조가 확인되었다. 고분은 문화재청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되고 있다.

가야고분군은 주민들에게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신성한 공간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인식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현재까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원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유산을 보존하고 학술 연구를 하며, 시민 홍보를 위해 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함으로써 유산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18. 12. 7.(금) ~ 12. 8.(토) / 구성요소 7개 고분군 현장
- 검토자 : ○○○ 서울학연구소 연구교수, ○○○ 공주대학교 교수,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소장
- 검토의견(요약)
 - 가야 고분군은 가야 정치체의 각 중심지에 위치하여 가야 문명을 대표적으로 증거하고, 배치와 묘제의 변화, 부장유물 등에서 각 지역에서 발전하여 중앙집권화를 이루지 못하고 해체된 가야 문명의 사회구조를 반영한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본 틀은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가야 문명의 세계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가야 고분군의 독특성·탁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유산과의 비교연구, 유산구역 설정의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며, 유산 설명의 기술방식 등 전반적인 신청서 완성도 보완이 필요함.
 - **(설명)** 각 유산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 부족, 특히 유산의 현황 및 현재까지 변화과정, 유산 보존 이력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각 유산 설명에서 일관성있게 설명될 필요가 있음. 가야사 및 고분과 관련하여 통일된 용어 사용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정의를 내린 용어의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이 별도로 필요.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정당화)** 교역시스템이 고분군을 통해 증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 부족(피장자의 신분 규명을 통한 고분군의 위계, 대외교역 사실 정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비교연구)** 내용 부족 및 비교대상 부적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묘지유적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유사한 대규모 고분군에 대한 비교 필요(일본의 모즈-

후루이치 고분군, 중국 낙양 북망산고분군 등). 또한 가야고분에서 중요하다고 기술한 주요 속성별 비교를 통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도출 필요. 국내 비교연구에서 780개소의 가야고분군 중에 왜 이 고분군이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보완 필요

- **(유산구역/완충구역 설정과 완전성)** 7개 지역별 유산구역 설정논리 부족 : 7개 지역(김해-금관가야, 고령-대가야, 함안-아라가야, 창녕-비화가야, 고성-소가야, 함천-다라국, 남원-기문국)은 가야 정치체의 중심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나, 각 지역 내에서는 단순히 사적 및 그 구역을 신청대상으로 포함하였음.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중요시하는 속성과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구성이 없음. 각 지역 내에서 어떤 범위를 유산구역으로 선정하였는지 논리 불분명하며, 경계선이 지형, 필지 등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 명확화 필요.
- 특히, 주변 고분군, 취락지, 토성 등의 주변유적에 대한 유산구역 혹은 완충구역 포함여부 재검토 필요 *현재는 7개 사적구역을 신청대상으로 선정
- **(진정성)** 정신, 감정의 측면에서 진정성 유지 명확화 필요
- **(보호관리계획)** 남원 두락리-유곡리고분군의 경우 역사보존환경지역의 현상 변경허용기준안이 아직 마련 중에 있으며, 완충구역 중 문화재보호법이 아닌 다른 법제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용 보완 필요.

바. 검토 의견

- 전문가 검토회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기 위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적된 취약점은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질적 시간 부족 우려
 - 금번 회의에서 선정 가결시 '19.상반기 중으로 국문신청서를 완성하고, '19.7 월말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심의를 거쳐 '19.9월에 세계유산센터에 영문초안을 보내야 함

사. 의결사항

- 보류(출석 6명, 보류 5명, 제척 1명)
 -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하여 위원회에서 추후 재심의함(3월 이내)

붙임. 「가야고분군」 등재신청서(안) 설명자료(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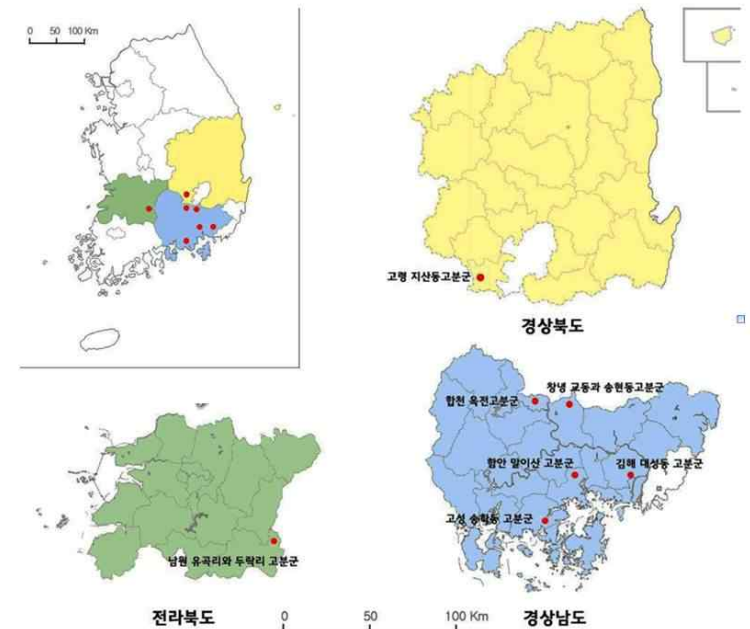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1

2

구분		내용
시기		기원 전후~562년
대상	경상남도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 합천 옥전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고분군
	전라북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등재기준 (iii)		가야고분군은 고분의 입지, 묘제의 변화, 배치 방식 등을 통해 가야 문화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과정과 가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이다.

3



4

1-2. 주요 추진 경과

구분	사업내용
2013.12.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김해·함안 가야고분군」,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으로 각각 등재
2015.03.	세계유산 우선등재추진대상 선정(문화재청)
2017.02.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발족
2017.12.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보류 결정(문화재청) ※ 완전성 부족, 등재기준 미비, 비교연구 부족, 보존관리 계획 구체성 부족
2018.03.-04.	유산 재선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3회)
2018.05.	가야고분군 유산범위 확대 추진 결정 ※ (당초)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추가)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2018.08.	가야고분군 공동등재 추진 MOU 체결(문화재청, 10개 지자체)

5

1-3. 주요 보완 사항

완전성 보완을 위한 유산 재선정

- 가야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 재선정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성 송학동, 합천 옥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추가

등재기준 재서술

- (ii)(iii)(iv) → (iii)
 - 사라진 가야 문화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가야고분군의 가치 강조
 - 교류(ii)와 경관(iv)에 관한 내용은 등재기준(iii)에 포함

6

1-3. 주요 보완 사항

비교 연구심화

- 기 등재 유산 중 고분관련 유산과 가야고분군의 시기 및 유형 비교
- 국내 및 동북아시아 세계유산 중 가야고분군과 동일한 기준(iii)으로 등재된 고분 관련 유산과 비교
- 가야지역 내 기타 고분군과 신청유산 비교

보존관리 보완

- 보존관리 기본계획 용역 시행
 - 가야고분군 기초현황 조사 및 보존관리 기본 계획 수립
 - 모니터링 현황 조사 및 모니터링 지표 작성

7

2. 탁월한 보편적 가치

8

2-1. 등재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 가야고분군은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562년까지 가야문화의 성립과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보여줌
- 가야고분군은 분지와 해안 및 내륙의 교통로를 배경으로 성장한 가야 사회의 문화적 전통을 증명
- 고분의 규모와 배치, 매장시설의 구조, 부장유물의 변화는 가야사회 내부의 신분질서와 사회구조 변화를 보여줌

9

2-2. 가야고분군의 주요 특징

1. 고분군의 입지

- 가야는 각각의 분지를 배경으로 대등한 수준의 독립된 정치체를 형성, 교역로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 신라·백제와 다른 공통된 정치·문화 의식 공유
- 가야고분군은 교역로(해상-남해안, 수상-낙동강, 육상)를 배경으로 성장한 가야의 주요 정치체를 증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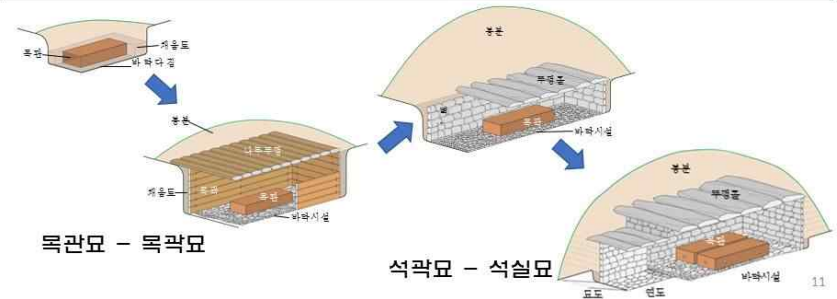


가야 대내외 교역망(좌:국제 교역로, 우:국내 교역로) ■:해상교역로, ■:수상교역로, ■:육상교역로 10

2-2. 가야고분군의 주요 특징

2. 묘제의 변화와 고분 축조기술

- 목관묘 - 목곽묘 - 석곽묘 - 석실묘로 계기적으로 변화함
- 목재에서 석재, 곽묘에서 실묘로의 변화는 매장관념 변화 반영
- 고층의 출현과 확산은 지배층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보여줌
→사회복합화 과정 증명



목관묘 - 목곽묘

석곽묘 - 석실묘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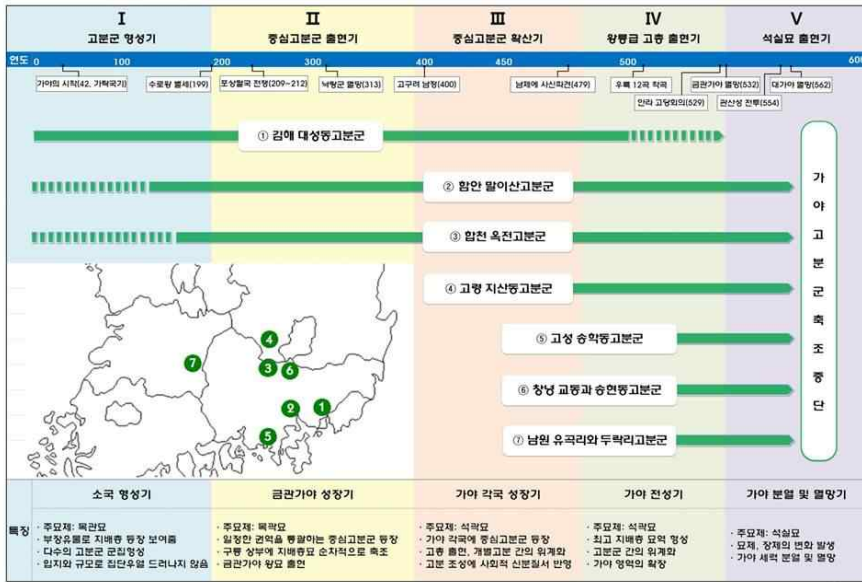
2-2. 가야고분군의 주요 특징

3. 고분군에 반영된 가야의 사회구조

- 입지와 고분의 배치, 묘제의 변화와 고분 축조기술, 부장유물의 차이는 가야 사회 구조 변화를 보여줌
- 목관묘 단계: 고분군 형성, 지배층 등장
- 목곽묘 단계: 중심고분군 형성, 구릉 상부에 지배층묘 순차적 조성, 순장묘 증가, 원거리 교역을 통한 외래계 유물 다량부장
- 석곽묘 단계: 고층 출현과 확산, 가야 각 정치체 중심에 지배층 고분군 조성, 고분 조성에 사회적 신분질서 반영
- 왕묘급 고층 출현단계: 최고 지배층 묘역 형성과 고분의 위계화 심화
- 석실묘 단계: 장제의 변화와 가야사회 분열과 멸망

12

<가야고분군에 반영된 가야 사회의 발전과정>



13

2-3. 비교연구

1. 기 등재유산과 비교

- 가야고분군은 흙이나 돌을 이용하여 매장시설 상부에 봉분을 축조한 형태로 쿠르간 또는 고분 유형에 속함
- 가야는 생활근거지와 가까운 독립 구릉에 고분을 축조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함
- 도성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가야에서는 고분군이 제례와 관련된 각종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됨

14

2-3. 비교연구

2.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고분유산과 비교

국가	유산명	등재 기준	조성 연대	공통점	차이점	사진
대한민국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iii)	기원전 1000년	당시 기술과 사회상을 보여줌	시기(청동기)와 형태(거석)	
	조선왕릉	(iii)(iv)(vi)	1408년 ~ 1966년	자연 친화적인 배치로 통해 경관한 장소 창조	시기(조선)와 대상(왕 개인들의 무덤)	
	경주역사 유적지구	(iii)(iii)	7세기 ~ 10세기	시기(삼국)와 형태(고분)	불교문화 바탕, 도성체계를 구성하는 유산의 일부	
	백제역사 유적지구	(ii)(iii)	475년 ~ 660년			

15

2-3. 비교연구

3. 동북아시아 세계유산과 비교

국가	유산명	등재 기준	조성 연대	공통점	차이점	사진
중국	은허	(ii)(iii)(iv)(vi)	기원전 13세기 ~ 기원전 10세기	고대 신앙과 사회 체계 발전상을 보여줌	궁전, 무덤, 제단 등이 포함됨	
	진시왕릉	(i)(iii)(iv)(vi)	기원전 221년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군사 조직을 보여줌	절대군주의 능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	(i)(ii)(iii)(iv)(v)	기원전 1세기 ~ 7세기	문명이 남긴 특별한 발자취, 가야와 유사한 시기 조성	중앙집권화된 도시체계의 일부로서 가치를 지님	
	명과 청 시대의 왕릉	(i)(ii)(iii)(iv)(vi)	14세기 ~ 17세기	500년 이상 지배한 세력의 문화적, 건축학적 전통을 보여줌	유교와 통수지리 사상이 반영된 자연·문화 경관	

16

2-3. 비교연구

3. 동북아시아 세계유산과 비교

국가	유산명	등재 기준	조성 연대	공통점	차이점	사진
북한	고구려 고분군	(i)(ii)(iii)(iv)	5세기 ~ 6세기	문화, 매장 풍습, 일상 생활과 신앙의 예외적인 증거	중앙집권화된 왕과 귀족의 무덤, 벽화를 통해 사회상 증명	
	개성의 역사 기념물과 유적	(iii)(iii)	10세기 ~ 14세기	사상의 전환기를 무덤과 고고학적 유산을 통해 보여줌	불교·도교·유교·종수 지리 개념이 반영된 왕묘와 관련 유적	
일본	오키노시마 무나카타 관련 유산군	(iii)(iii)	4세기 ~ 9세기	제례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유산	일본인들의 전통 신앙을 볼 수 있는 탁월한 사례	

17

2-3. 비교연구

4. 동북아시아 잠정목록 등재 유산과의 비교

국가	유산명	등재 기준	조성 연대	공통점	차이점	사진
일본	모즈-후루이치 고분군	(ii)(iii)(iv)	4세기 ~ 6세기	독특한 문화적 전통의 증거 고분군에 정치와 사회상 반영	왕묘와 배종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고고학적 조사 불가	
중국	서하왕릉	(iii)	11세기 ~ 13세기	사라진 문명의 존재와 뛰어난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특별한 증거	북송의 황실건축을 모방한 서하 황제를 위한 무덤군	
몽골	홍노 지배층 장지	(iii)(iii)	기원전 3세기 ~ 2세기	사라진 매장 전통과 관습을 포함한 문화 전통의 증거, 고대 국가 형성기의 유산	지배층의 묘로 넓은 범위에 분산되어 배치	

18

2-3. 비교연구

5. 기타 가야고분군과 비교

- **특징 A** 고분군 배치방식, 고분의 형식을 통해 가야 정치·사회 발전 과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줌
- 고분군 형성·확산·위계화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고분군
- **특징 B** 가야의 각 문화권을 대표하는 중심지에 조성된 고분군
- 각 정치체 중심지의 최고 지배층이 포함된 대형 고분군
- **특징 C** 가야의 체계적인 교역시스템을 보여줌
- 남해안, 낙동강과 그 지류변의 주요 포구, 내륙 교통 요지에 위치한 대형 고분군

19

2-4. 완전성

완전성

- **구성요소**
시기적인 변화와 지리적인 특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
- **개별 유산의 범위**
고분 배치에서 보이는 위계적인 특성이 반영되도록 다양한 계층의 고분을 포함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모두 사적으로 지정, 주변에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며 문화재보호법과 산림법 등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 **관리주체**
문화재청,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방자치단체

20

2-5. 진정성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품질**
흙과 돌을 이용한 구조물은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고 과학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고분의 구조를 확인, 고분 정비는 과학적인 조사와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
- **입지와 주변환경**
처음 조성된 이후 위치가 옮겨지지 않고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음
고분군과 관련된 중심 취락지, 포구 등이 주변에 위치함
주변의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음
- **정신과 감정**
가야의 중심지와 관련된 지명, 설화 등이 전해짐
가야사를 복원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음

21

3.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22

3.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기본원칙

- 개별고분군의 지형적인 특성과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보여주는 모든 요소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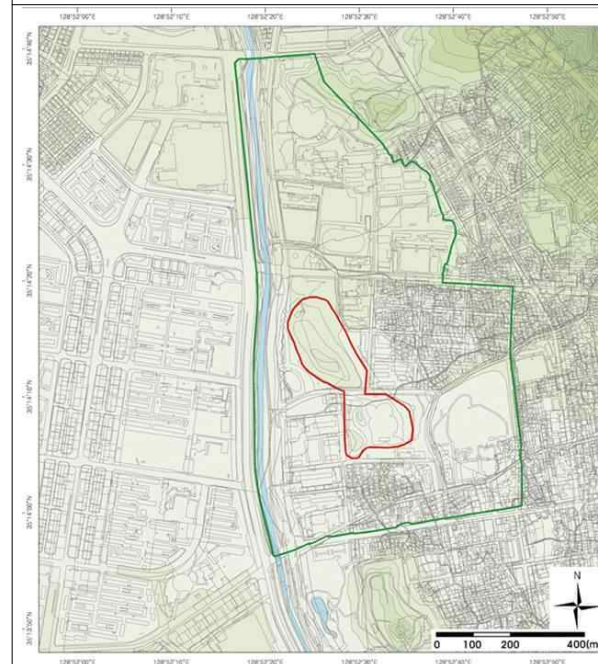
유산구역의 경계

- 고분군이 위치한 구릉의 원상과 경사도를 고려하여 설정

완충구역의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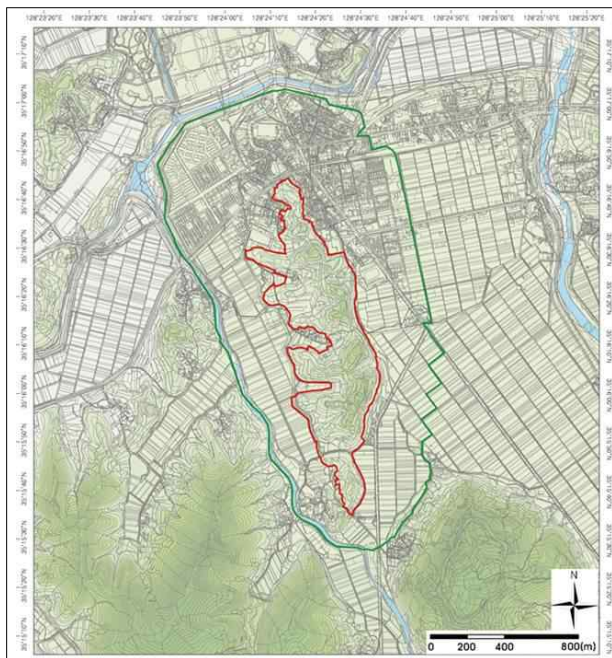
- 도로와 건축물과 같은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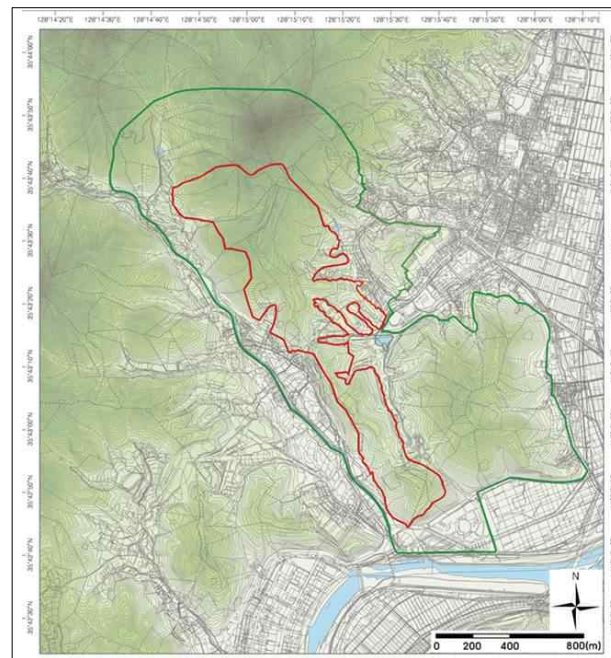
경상남도
김해 대성동고분군

24



경상남도
함안 말이산고분군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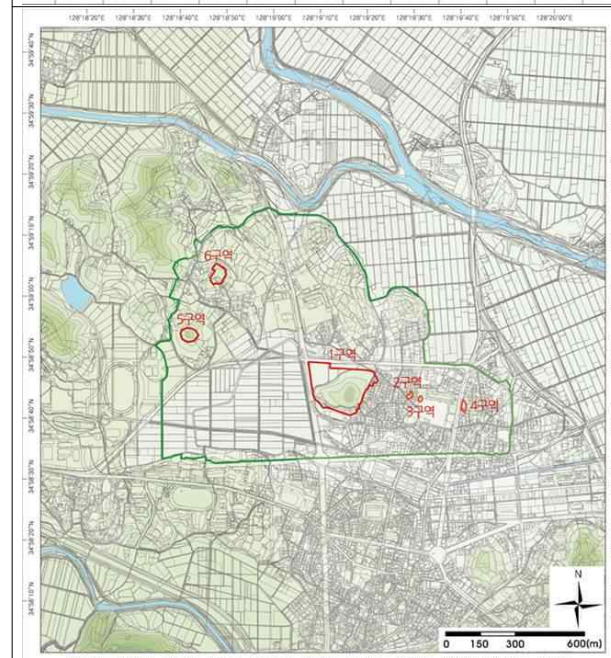
경상북도
고령 지산동고분군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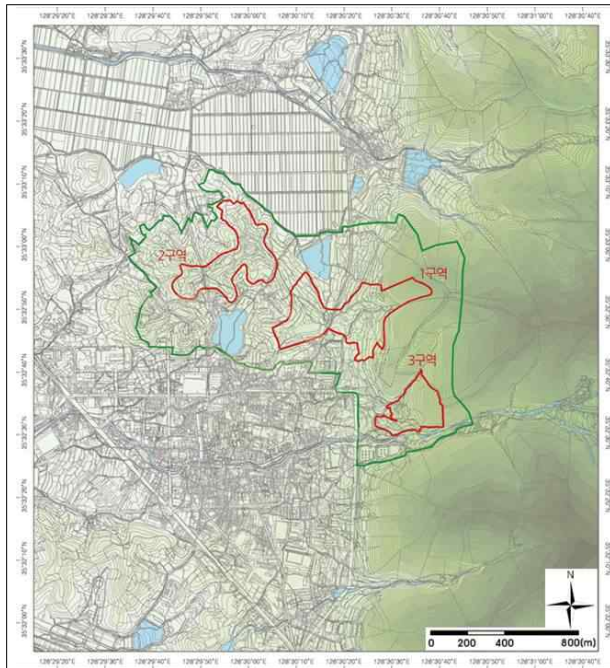
경상남도
합천 옥전고분군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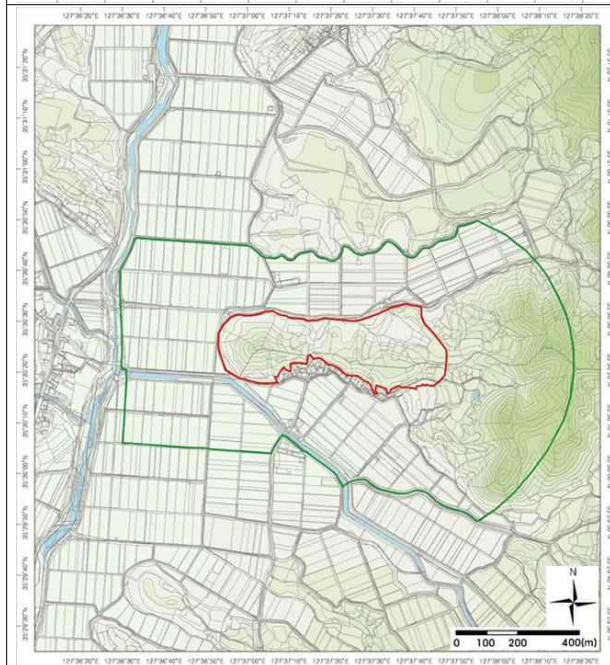
경상남도
고성 승학동고분군

28



경상남도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29



전라북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0

4. 보호와 관리체계

31

4-1. 보호와 관리체계

1. 보존현황 및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법적 보호 및 개발 압력
모두 사적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관리
- 김해 대성동고분군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성 송학동고분군 주변은 20세기 초부터 도심지로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구역은 대부분 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음
- 재해 · 재난
정기 점검 및 예방활동 실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비 실시
- 관광 압력
방문객 수용 시설과 관련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짐
- 거주민
유산구역 내 거주하는 거주민은 없으며 훼손 가능성 낮음

32

4-1. 보호와 관리체계

2. 유산의 보호 및 관리

• 법적 보호체계

문화재 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있음

• 소유권

유산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개발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사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진행 중임

• 관리체계 및 주체

문화재청: 신청유산 보호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지방정부: 보수, 조사, 현상변경 및 불법행위 단속, 방문객 관리 등

33

4-1. 보호와 관리체계

2. 유산의 보호 및 관리

• 교육 및 방문객시설

문화재청과 관련기관에서 문화유산교육 실시
박물관 및 홍보관 등 편의시설 설치 운영

• 유산활용

가야고분군 홈페이지 운영, 통합 리플릿 제작, 가야고분군 아카이브 구축, 홍보 동영상 및 다큐멘터리 제작 등 통합 정보제공 및 홍보

• 전담인력

통합기구: 가야고분군세계유산등재추진단

(향후 가야고분군 통합보존관리사업단으로 재구성 예정)

지방자치단체: 행정, 학예,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 운영

34

4-2. 모니터링

상시 모니터링

- 일반적인 관리상태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 홍보, 보존 및 관리, 주변 환경 등 상황 기록

특수 모니터링

- 외부적인 영향으로 변형·파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상황 기록, 외관·구조·안전성 등을 정밀 진단
- 경관, 관광, 재난·재해, 관리체계 등 기록

35

감사합니다.

36

보 고 사 항

2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정 보고

가. 보고사항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기 등재된 「고령 지산동 대가야고분군」과 「김해·함안 말이산 가야고분군」을 「가야고분군」으로 통합·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경위

- 「가야고분군」은 2013년 12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으로 각각 등재되었으며, 2015년 3월 우선등재 추진대상 선정 당시 두 잠정목록을 통합해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의결됨
- 그러나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제5차 회의(2017.12.15) 심의결과, 보류되었으며, 가야고분군 완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산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따라 기 등재된 잠정목록인 「김해·함안 가야고분군」과 「고령 대가야 고분군」을 포함하여, 문화재위원회 구성유산 재구성을 위한 학술토론회 [제 1/2/3차 토론회 (18.3.7 / 18.3.21 / 18.4.25)]를 거쳐 선정된 4개 유산을 추가한 「가야고분군」으로 잠정목록을 조정하고자 함

다. 관련 규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 제4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신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제 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사진, 영상물 등 관련 자료의 일체를 포함한다)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잠정목록 등재 이후 보존 관리 계획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격, 등재추진 전략상의 사유 등으로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청유산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참고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발췌

- 62. 잠정목록은 각 당사국이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으로서 자국 영토에 위치한 유산의 목록이다. *(후략)*
- 63. 신청유산이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계유산목록 등재신청서는 검토되지 않는다.
- 65. 당사국은 신청서 제출 최소 1년 전에 사무국에 잠정목록을 제출한다. 당사국은 적어도 10년에 한 번 잠정목록을 재검토해 다시 제출하기 바란다.
- 66. 당사국은 부록 2A와 부록 2B(국가간유산과 월경유산의 신청)의 표준양식을 사용해 유산의 명칭과 지리적 위치, 유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근거를 기술한 잠정목록을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해 제출한다.
- 68. *(전략)* 각 잠정목록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관련 당사국에 있다. 잠정목록의 공개가 세계유산위원회나 세계유산센터 또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어떤 국가,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이나 그 경계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어떠한 의사를 표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128. 신청서는 연중 어느 때 제출해도 무방하나 2월 1일이나 그 이전에 사무국에 접수된 ‘완성본’만 다음 연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고려한다. 당사국의 잠정목록에 포함된 유산의 등재신청만 위원회에서 검토된다.

라.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18.8월) 문화재청·지자체 추진단 MOU 체결
- (‘18.8월~12월) 7개 유산(「김해 대성동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합천 옥전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성 송학동 고분군」,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인 「가야고분군」의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
- (‘18.9.11, ‘18.10.1 / 2회) 관련 전문가 검토 및 보완 : ○○○ 서울시립대 교수, ○○○ 공주대 교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18.12월~‘19.1월 중순) 영문 번역 및 감수
- (‘19.1월 말) 잠정목록 제출(문화재청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5명, 접수 5명)

3. 「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남북 공동등재 경과 및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에 걸쳐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최된 제13차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남북 공동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씨름>의 추진 경과 및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경위

- 대한민국은 <씨름>(Ssireum, Traditional wres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을 2016년 3월 등재신청하였고, 북한은 <씨름>(Ssirum(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2015년 3월에 등재신청하였음.
- 북한의 씨름은 2016년 에티오피아에서 열린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보류(R)로 결정되어 2017년 재신청, 2018년 심사대상이 되었으며, 한국의 씨름은 다등재국 심사건수 제한에 의해 2018년도 심사대상이 되어 심사시기가 일치함
- 이에 제13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남북의 씨름을 대표목록에 공동으로 등재하기로 결정되었기에 그 경과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다. 추진 경과

- 1) 대한민국 <씨름> 등재신청 및 심사시기 결정
 - 2015.11월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심의를 통해 <씨름>을 차기 등재신청 대상으로 확정
 - 2016.1월 국문 등재신청서 작성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국립무형유산원, 세계유산팀, 허용호 교수, 심승구 교수, 박상미 교수, 연등회 보존회 참여
 - 2016.3월 영문등재신청서, 동영상 등 유네스코 제출
 - 2017.12월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씨름>을 2018 심사대상으로 확정
- 2) 북한 <씨름> 등재신청 및 심사시기 결정
 - 2015.3월 등재신청서 유네스코 제출
 - 2016.10월 평가기구 심사결과 공개 : 등재보류(R)
 - 전승공동체의 참여, 여성 참여, 북한 씨름 등재가 무형유산 전반의 가시성과 인식제고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정보 부족
 - 2016.12월 제11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보류 결정
 - 2017.3월 등재신청서 수정, 재제출

- 2017.12월 제1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북한 <씨름>을 2018 심사대상으로 확정
- 3) 남북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 평가기구 심사과정
 - 2018.3월 평가기구 제1차 회의
 - 2018.6월 평가기구 제2차 회의
 - 2018.9월 평가기구 제3차 회의
 - 2018.10월 평가기구 심사결과 공개 : 남북 <씨름> 모두 등재권(I)
- 4) 남북 공동등재 추진 과정
 - 2018.10월 문재인 대통령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면담 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공동등재 제안
 - 2018.11월 유네스코-북한-대한민국(외교부/주유네스코대표부) 협의
 - 2018.11.25. 제13차 정부간위원회 의장단 회의에서 공동등재 안건 상정 승인
 - 2018.11.26. 제13차 정부간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의장(모리셔스 문화예술부장관)이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를 안건으로 긴급 상정
 - 본래 대표목록 등재심사 및 결정은 11.28. - 11.29. 예정
 - 대표목록 등재심사 순서는 북한 씨름이 13번, 대한민국 씨름이 30번이었으나 신규로 공동등재 안건(41번) 상정
 - 평가기구 의장이 남북 씨름 등재신청서를 비교하며 개별 신청 유산임에도 유래, 전승현황,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설명
 - 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등재 결정

라. 추진결과

- 남북 씨름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공동으로 등재
- 등재명은 Traditional Korean wrestling(Ssirum/Ssireum)
 - 씨름의 영문표기는 병기하되, 국가명 순서(DPRK, ROK)와 북한 씨름이 먼저 등재신청했던 점을 고려하여 Ssirum을 우선 표기
 - 대한민국 신청 제목과 같이 Traditional Korean wrestling으로 표기
- 이번 공동등재 결정은 예외적인 결정으로 향후 남북의 인류무형유산 공동등재는 협약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등재신청서 작성, 제출, 심사, 결정의 단계를 거쳐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5명, 접수 5명)

4.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내 임해전지(동궁과 월지) 재현계획의 세계유산센터 협의 경과 보고

가. 보고사항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내 임해전지 재현계획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한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복원작업이나 신축공사가 있을 경우 당사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사전에 알리도록 권고(운영지침 172)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 이행을 위해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하였음

다. 추진 경과 (이하 사적분과 보고사항과 동일)

- 월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세부계획, 기본설계 수립('10~'14)
- 기본설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15.12. / 조건부 승인)
 - 동궁과 월지 추가 고증연구(수종, 단청, 기와하중, 당호, 건축용 철물) 실시 후 실시설계로 전환, 전통조경정비계획 수립
- 동궁과 월지 실시설계('16.6~'17.5)
 - 수종 등 5개분야 고증연구 실시
- 실시설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심의('17.10. / 조건부 가결)
 - 세계유산센터 협의, 보완 발굴조사 실시 후 결과를 설계에 반영 / 추가 고증연구 실시
- 보완 발굴조사('18.4~10.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감주(減柱)기법, 출입시설(계단) 위치 등 일부 설계변경 사유 확인
- 세계유산센터 협의자료 작성 완료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보고('18.8.17. / 원안접수)
- 「「경주역사유적지구」 월성지구 내 임해전지(동궁과 월지) 복원계획」 세계유산센터 통지('18.8.29)(청 세계유산팀→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 추가 고증연구(단청·건축용 철물) 보완결과 제출('18.9.)
- 세계유산센터 1차 회신('18.9.12)(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청 세계유산팀)

- 이코모스의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회신하겠다고 알려음
- 조건부 설계승인('18.10.1)
 - 내진, 목구조 결구, 단청 등 시공전 추가 검토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것
- 조달청 입찰 공고(경주시 / '18.10.29~12.3)
- 세계유산센터 2차 회신('18.11.8)(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청 세계유산팀)
 - A건물의 복원이 유적의 성격과 진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예외적 근거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됨
- 경주시에서 제출한 지적사항 반영 계획을 세계유산센터에 재통지('18.11.20)
 - 복원이 아닌 보호시설 / 지하유구 노출(기초상면 강화유리 설치 등) 방식의 전시·홍보 기능 추가 / 지하 고고유구 보호방법 변경(콘크리트→철제 구조물)
- 세계유산센터 재협의 방문 - 아태과장 펜징 면담('18.11.23)
 - 면담내용 및 결과 ※ 방문자 : 청 세계유산팀, 신라왕경추진단, 경주시 등 (청·경주시) 사업의 중요성 및 재통지 내용 추가 설명 / 이코모스의 보완 의견에 대한 수용 의지 피력 (센터) 유적의 진정성 유지 재강조(양식적 고증 외 용도·기능의 고증 필요 강조) 및 보호시설도 유적의 진정성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는 의견 / 유산영향평가 수행 필요

라. 참고사항

- (1) 동궁과 월지 향후 진행 계획
 - 세계유산센터와의 협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이코모스의 지적사항, 최근 세계유산구역 내 보존·복원의 세계적 추세) 등을 관계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진행
 - 동궁과 월지 보완 발굴조사 및 문화유산영향평가 실시
 - 월지 서편건물지군 전체의 보완조사를 통해서 건물의 기능 및 용도 확인 필요
 - 세계유산센터에서 권고하는 문화유산영향평가를 발굴조사와 함께 연계하여 실시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출석 5명, 접수 5명)